

제 3 교시

논술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1. <사례>를 읽고 <관점>을 고려하여 <조건>에 따라 글을 작성 하시오. (900~1200자, 50점)

- <조건>
- 1. 입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작성할 것
 - 2.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제시할 것
 - 3. 입법안을 활용할 때는 가①, 나②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 4. 소급입법 문제는 판단하지 말 것

<사례>

A국에서는 10년 넘게 폭정을 일삼아 온 독재 정권이 시민혁명으로 무너지고,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의회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새로운 의회정부는 과거 독재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을 부패한 공직자 및 권력과 결탁하여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자들로 보고 이들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 특별법 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부패 공직자와 부정 축재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1년 넘게 지지부진한 논의만 계속되었다. 이에 더 이상 과거 청산을 늦출 수 없었던 의회정부는 논의를 종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여론 조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가. 이 법에서 부패 공직자는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 ① 독재 정권에서 임명된 장·차관 중 재임기간이 1년 이상이었던 사람
- ② 독재 정권에서 선출된 여당 국회의원 중 재선 이상이었던 사람
- ③ 독재 정권에서 임명된 재판관 중 각급 재판소의 장이었던 사람

나. 이 법에서 부정 축재자는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 ① 독재 정권에서 부동산 취득액이 10억 원 이상이었던 사람
- ② 독재 정권에서 주식 취득액이 5억 원 이상이었던 사람
- ③ 독재 정권에서 세금 포탈액이 1억 원 이상이었던 사람

그런데 막상 입법안이 발표되자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 기준을 여론 조사로 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 기준을 정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A국 의회정부 책임자들 사이에서는 입법안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욱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 <관점>
- 1. 과거 청산 과정에서 억울한 대상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운다는 명목으로 부패 공직자와 부정 축재자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대상자를 공개하거나 처벌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2. 과거 청산은 신속하게 미래 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통스러운 과거에 얽매어 있는 것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요 대상으로 한정하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수행한 후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 3. 과거 청산은 진실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독재 정권의 희생자와 시민혁명의 주체들을 기리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패 공직자와 부정 축재자를 남김없이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2. <조건>에 따라 <사례>를 해결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1.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할 것
2. <의견>을 모두 활용하여 논변할 것
3. <관점>을 활용할 때는 X, Y, Z로 표시할 것
4. <의견>을 활용할 때는 ①, ②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사례>

중세 A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 및 이웃과 지속적인 불화를 겪던 젊은 농민 갑은 아내를 버려둔 채 가출했다. 몇 년 후 전쟁이 발발하여 징병되었다는 소문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된 그가 십수 년이 지나 돌연히 귀향했다. 돌아온 갑은 예전에 비해 건장해지고 성실해졌으며 가출 전과 달리 아내에게 매우 다정해졌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갑이 외지에서 배워 전파한 농작 기법 덕분에 마을의 수확량이 늘어난 데 기뻐했다.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면서 동업 관계에 있던 갑과 숙부 을 사이에 재산 다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을과 일부 친척들은 타인사칭 혐의로 갑을 고소하였다. 당시에는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재산을 빼앗는 범죄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A국 형법은 타인사칭을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지방 재판소는 선례에 따라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이게 하여 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을은 재판 방식 및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다. 중앙 재판소는 마을 사람들 중 여섯을 선정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모두 들은 재판관 3인은 각자의 <관점>을 피력하고 갑의 유무죄를 판단하기로 했다.

<관점>

- 재판관 X: 선례와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 재판관 Y: 모든 증거가 유죄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
- 재판관 Z: 중한 범죄의 경우 개연적인 유죄 증거가 있다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

<의견>

- ① 재단사: 저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간 옷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출 전에 갑이 수선을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바지를 돌려준 적이 있는데 얼마 전 새로 주문한 바지는 이보다 두 치수 더 작았습니다. 제가 평생 보아온 바에 따르면 사람의 키가 커지는 경우는 있어도 작아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 ② 갑의 누이: 타인사칭을 주장하는 이들은 을로부터 돈을 받거나 협박을 받은 자들입니다. 재단사의 경우도 처남이 을의 소작농이라 그의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의 말대로 치수가 줄었다 해도 긴 타지 생활로 몸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갑의 동생으로, 누구보다 오빠를 잘 압니다. 거짓된 말들로 선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 ③ 촌장: 저는 을의 의도가 조카에 대한 애정이 아닌 재산 욕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갈라지고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만에 하나 그가 가짜라 해도 진짜는 이미 전쟁터에서 사망했을 텐데 을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반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④ 제빵사: 갑이 전쟁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징병으로 전장에 나가서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절로 눈물이 났었습니다. 전쟁에 갔다 오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⑤ 을의 부인: 저는 갑이 어렸을 때 거의 매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를 지켜보며 의심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 상당수가 의심을 품고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이 득이 되어서 모른 채하는 걸로 짐작됩니다. 갑의 누이와 아내 역시 가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 남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 ⑥ 원로: 저희 마을에서는 심한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광장에 모여 토론을 벌인 후 다수결에 따라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과 그 결과에 직접 영향 받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이기 때문입니다. 지방 재판소는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선례를 존중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의 분량 미달과 분량 초과는 같은 기준으로 감점됩니다.